

최근 중국 정유산업의 구조 변화와 시사점

요약

중국의 정유산업은 2000년대 후반 고도성장기의 대규모 설비투자 이후의 정제능력 과잉 해소를 위한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심각한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유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정유산업은 新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거대 국영기업 중심의 정제설비 확충계획과 석유제품의 수요 증가율 감소를 고려할 때 공급과잉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유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양적·질적인 면에서도 대중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유산업의 설비 고도화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유산업이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경우, 적극적으로 수출확대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중국 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수출다변화 전략을 통한 대중 수출의존도 축소가 필요하며 대중국 수출에서는 신장타이로의 전환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중국은 정제능력 과잉 해소를 위한 기업 간 구조조정과 더불어 에너지시장 전반에 걸쳐 시장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은 중단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정유산업에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 머리말

최근 중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과거의 고도성장기와는 다른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를 들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오던 중국 경제는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7%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창타이(新常态) 즉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대변되는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는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해 온 정유산업의 대중국 수출물량은 201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양적 성장을 추진해 온 중국은 향후 新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중고속 질적 성장을 추진하려고 한다. 중국은 정유산업에서도 자급률 확대, 과잉설비 억제 등을 위한 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쟁구도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新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중국 정유산업의 수요·생산 및 발전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정유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최근 중국 경제의 특징과 산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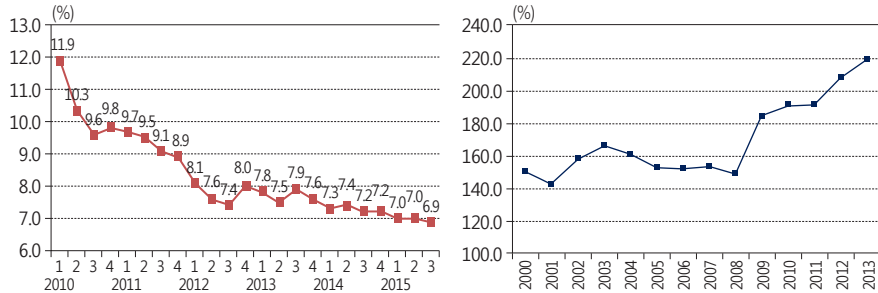
(1) 중국 경제의 변화

중국 경제는 GDP 성장률 변화 추이 및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속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중시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4년 5월 하남성을 시찰하면서 이와 같은 최근의 중국 경제 상황을 신창타이라고 지칭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창타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며 뉴노멀 즉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신

창타이는 최근 중국 경제를 논의할 때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세계 각국의 관심사도 이와 같은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연착륙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201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7%를 기록했지만 3분기 경제성장률(6.9%)은 6년 반 만에 7% 이하로 하락했다. 시진핑 시대의 경제정책 기조가 시장개입의 배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14년 11월 이후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며 6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해 지준율 인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등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실행하였다.

〈그림 1〉 중국의 GDP성장률(좌) 및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우)



자료 : GDP성장률은 중국 국가통계국, GDP 대비 부채비율은 環太平洋ビジネス情報 RIM, 「限界に向かう中国の企業債務拡大」, 2015, Vol.15, No.57.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비춰볼 때 3분기 성장률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로 4분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중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제시한 7%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6.9%의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에 포함되며 1, 2차 산업보다도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을 제시하며 경제개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향후 중국 경제의 연착륙에 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계 2위까지 성장한 중국의 경제규모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채상황을 고려할 때 이전과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중국의 新산업정책

중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은 중국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의 변화는 2013년에 추진된 리코노믹스(Liconomics)에서 찾아볼

수 있다. 리코노믹스란 시진핑 시대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리커창 총리와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로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코노믹스의 핵심은 중국 경제성장 모델을 이전 후진타오 시대의 투자 및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단기적 성장 둔화를 감수하고 서라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위적인 대규모 부양책 중단, 부채 축소, 지속적 구조개혁을 3대 축으로 내수활성화와 산업구조의 질적 개편을 통해 경제 성장률에 의존한 양적 성장에서의 탈피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리코노믹스로 시작된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는 2014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창타이란 개념이 공식적으로 제시되며 보다 체계화되었다. 신창타이의 경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국이 중국 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했다는 점과 총리의 고유 영역인 경제 분야에서도 강력한 개입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후 발표한 공보에서 신창

타이 시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9가지로 요약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8대 중점사항과 5대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한 신창타이로의 이행은 그 과정 속에서 거시경제와 미시적 산업구조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와 같은 중국 경제구조 및 정책의 변화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으며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및 산업일수록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계 총 GDP 성장액 중 약 28%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¹⁾ 우리나라의 2014년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5.4%로 글로벌 평균인 10.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상반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까지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2%나 감소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내수·소비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기업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과잉설비 산업들의 구조조정과 질적 성장 위주의 정책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요 산업들 간의 경쟁구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중앙일보, 「중국 고통의 역류」, 2015.8.31.

3. 중국의 경제개혁과 정유산업의 구조적 변화

(1) 중국 정유산업의 생산 및 소비구조 변화 규모로 글로벌 석유 정제능력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중국의 정제설비 능력은 세계 2위 중국의 정제능력은 2006년 약 700만b/d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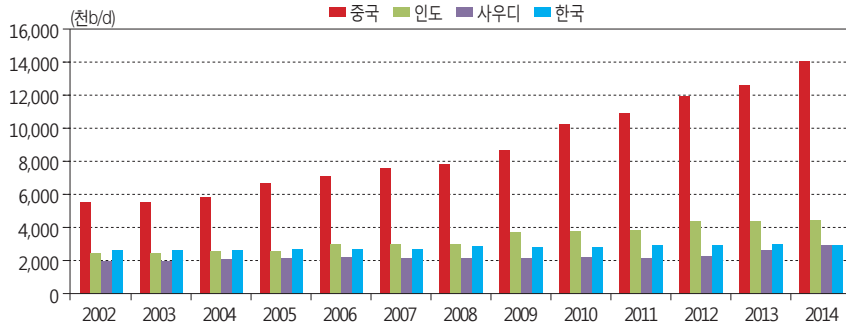
〈표 1〉 주요국별 석유정제능력(2014년 기준)

단위: 천 b/d, %

석유정제능력			
순위	국가	물량	점유율
1	미국	17,791	18.4
2	중국	14,098	14.6
3	러시아	6,338	6.6
4	인도	4,319	4.5
5	일본	3,749	3.9
6	한국	2,887	3.0
7	사우디	2,822	2.9

자료: BP통계, 2015.6.

〈그림 2〉 세계 주요국의 정제설비 확대 추이



자료 : BP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2014년 약 1,400만b/d로 200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2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기존의 투자 중심의 중국 경제발전 기조는 신규 정제설비 확대를 통한 석유제품의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으며 2012년에는 자국 내 석유제품 공급(1,154만b/d)이 수요(1,022만b/d)를 초과하는 수요·공급 역조현상이 발생하였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와 같은 과잉 설비투자에 따른 공급초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2013년까지 정제능력 4만b/d 이하의 소규모 정유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소규모 정유사들이 이를 회피하고자 추가증설에 나서면서 잉여 정제능력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다.

2012년 중국의 정제능력은 125만b/d 증가한 1,440만b/d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증가치의 34%에 해당하는 42만 6,000b/d는 4만b/d 이하의 소규모 정유사가 정유공장 폐쇄정책을 회피하고자 증가시킨 것이다.²⁾ 중국의 전체 정제설비 능력에서 소규모 정유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8%, 2012년 21.0%에서 2013년 22.3%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중국의 석유제품 소비량이 약 1,167만b/d인데 반해 정제설비능력은 1,540만b/d인 점을 감안하면 잉여 정제

2) 한국석유공사, 「중국의 정제능력 현황」, 2013.9.4, 원자료는 J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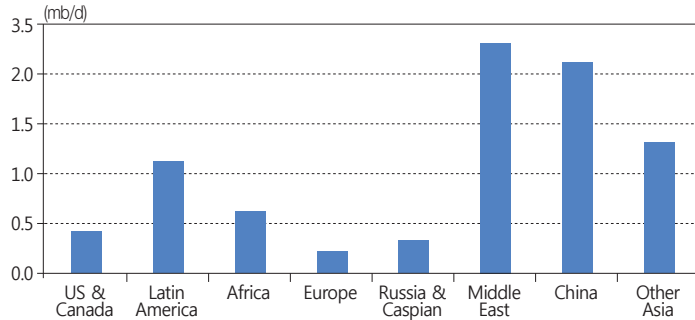
〈표 2〉 중국 정유기업의 정제능력(2013년 기준)

단위 : 백만 b/d

	2012		2013		2014	
	정제능력	전년대비 증가율	정제능력	전년대비 증가율	정제능력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4.4	12.0%	15.4	7.1%	16.5	6.9%
CNPC	3.9	7.8%	4.0	2.3%	4.1	4.3%
SINOPEC	5.7	9.1%	6.0	5.2%	6.2	3.2%
지방정제소	2.9	13.8%	3.4	19.5%	3.8	12.2%
기타	1.9	13.6%	2.0	3.8%	2.3	14.0%

자료 : JPEC, JPECNews, 「中国石油エネルギー動向調査」, 2015.3.7, 원자료는 北京山益信息諮詢公司.

〈그림 3〉 세계 주요국의 정제설비 확대 계획(2014-2019년)



자료 : OPEC, World Oil Outlook 2014.

능력은 약 400만b/d에 달한다.³⁾

중국 정유산업의 경우 정부 정책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들을 초래하며 향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2019년까지 2013년 대비 약 220만b/d의 정제설비 확충이 계획되어 있다. 이는 단일 국가 신규 정제설비 증설 계획 중에서 가장 많은 30.4%에 해당되는 비중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 공급과잉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경제체제의 신장타이로의 전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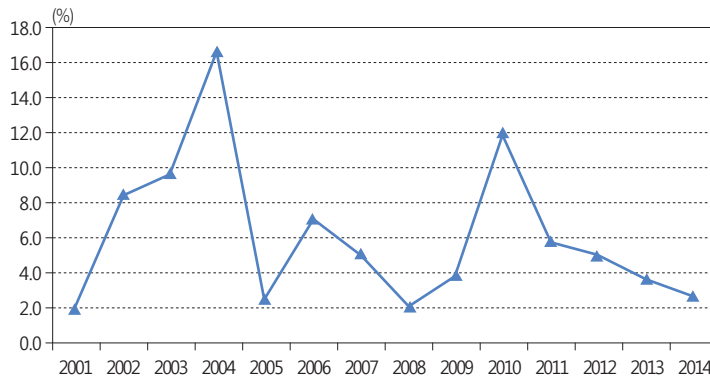
중국 내 석유제품 수요 증가율의 지속적 감소로 이어지며 공급과잉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의 Sinopec 경제기술연구소는 2020년까지 중국의 석유제품 연간 성장률이 2.5%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⁴⁾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 감소는 수출과 산업 활동의 침체로 인한 경유 및 중유의 수요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휘발유 소비가 전년대비 11% 증가했으며 여행 및 운송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항공유의

3) JPEC, JPECNews, 「中国石油エネルギー動向調査」, 2015.3.7.

4) JPEC, 「中国の原油·石油製品の需給と輸出入動向」, 2015.6.22.

〈그림 4〉 중국 석유제품의 전년대비 수요증가율



자료 : BP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표 3〉 중국의 석유제품 소비량 추이

단위 : 천 b/d

	2012		2013		2014	
	소비량	전년대비 증가율	소비량	전년대비 증가율	소비량	전년대비 증가율
LPG	738	4.3%	825	11.8%	971	17.7%
휘발유	2,002	11.8%	2,181	8.9%	2,422	11.0%
납사	1,411	2.3%	1,468	4.0%	1,535	4.6%
항공유	430	13.1%	482	12.1%	514	6.6%
경유	3,481	2.3%	3,526	1.3%	3,525	0.0%
중유	437	5.6%	436	-0.2%	433	-0.7%

자료 : JPEC, JPECNews, 「中国石油エネルギー動向調査」, 2015.3.7, 원자료는 北京山益信息諮詢公司.

소비량도 6.7% 정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LPG의 경우는 석화원료 용도로의 수요가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정유사들도 중국 내 석유제품의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 항공유 및 병커C유의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다. 2013년 중국의 석유제품별 생산량 증가율을 살펴보면 휘발유 9.9%, 항공유가 18.0%인데 반해 경유는 0.5%를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 국영 정유기업들은 설비 고도화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병커C유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중유사업 통합을 통한 생산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정유사들은 2012

년부터 정부가 의무화한 연료품질 규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황 원유 처리능력, 접촉분해, 접촉개질, 수소화 분해, 수소화 정제 등의 2차 처리능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 개질장치를 제외한 중국의 2차 처리설비 비율은 글로벌 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 중국 정유산업의 수출입 구조 변화

2014년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입은 자국 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수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1991년 이후 23년 만에 100만톤 이하의 차이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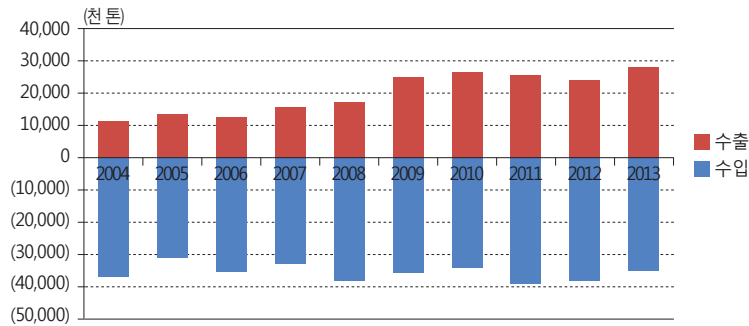
〈표 4〉 중국의 고도화설비 비율

단위 : %

	중국			세계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접촉분해	30.1	29.7	29.6	18.8	19.1	19.1
개질	7.5	8.3	9.1	13.2	13.0	12.8
수소화분해	12.3	11.9	12.7	7.5	7.8	8.0
코크	17.8	18.6	18.1	7.3	7.8	7.8
수소화정제	44.6	51.4	57.2	52.9	54.5	55.1

자료 : JPEC, JPECNews, 「中国石油エネルギー動向調査」, 2015.3.7, 원자료는 北京山益信息諮詢公司.

〈그림 5〉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입 추이



자료 : 東西貿易通信社, 「中国の石油産業と石油科学工業」, 2014.

〈표 5〉 중국의 국가별 석유제품 수입

단위: 만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1,106	879	972	816	840	1,127	995	872	724
싱가포르	484	323	574	607	646	637	588	569	524
베네수엘라	312	337	395	467	424	502	477	385	453
러시아	516	492	421	376	411	652	831	586	331
말레이시아	151	197	174	254	444	379	309	415	285
일본	286	316	477	350	266	206	171	170	127
사우디	84	40	31	44	2	29	24	58	82
대만	93	129	287	127	73	60	85	65	72
이란	186	204	120	52	46	62	37	160	47
태국	42	106	147	150	86	26	24	120	44

자료 : JPEC, 「中国の原油·石油製品の需給と輸出入動向」, 2015.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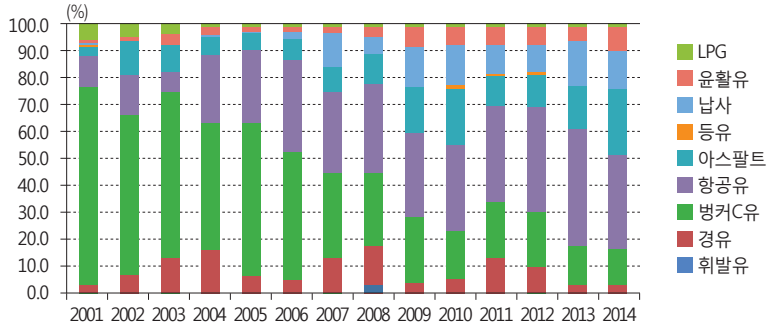
이며 거의 동등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⁵⁾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Sinochem은 연간 처리능력 1,200만톤의 취안저우 정제소에서 유로5 규격의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Sinopec도 2016년 완공예정인 차오페이디엔 정제소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Petrochina는 지난 2월 호주의 석유제품 판매회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로5 수준의 휘발유를 수출하기 시작하는 등 향후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은 석유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인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석유제품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정제설비 확충에 따른 자급률 확대에 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2011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제시설 확대 및 설비고도화를 통해 수출 강화전략을 추진 중에 있는 중동국가 및 인도와 세일가

5) JPEC, 「中国の原油·石油製品の需給と輸出入動向」, 2015.6.22.

〈그림 6〉 우리나라의 석유제품별 대중국 수출비중 추이



자료 : Petronet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스로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의 석유제품 최대 수입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경쟁국에 비해 빠른 수입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급률 확대에 나서고 있는 중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2006년까지 중국의 석유제품 수입량 중 약 75%를 차지하던 병커C유의 수입량이 2014년에 60%까지 감소하였다.⁶⁾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도 기존의 병커C유 및 경유 중심에서 항공유 및 윤활유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3) 중국 정유산업의 구조조정

중국 정유산업의 과잉투자에 따른 공급초과는 정제가동률 감소로 인한 정제마진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정유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중국의 석유제품 생산 및 공급 구조는 북동부의 대규모 정제소에서 대량의 휘발유 및 경유를 남동부에 공급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남동부 해안지역에 자급률을 초과하는 과잉설비가 건설되며 흑룡강성 및 요녕성에 있는 대규모 국영 정제소의 정제설비가동률이 다른 지역의 평균인 80%대에 훨씬 못 미치는 70% 전후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게다가 산둥성, 하북성, 녀하 자치구 등 소규모 정제소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의 정제설비가동률은 40% 전후까지 급감했다.⁷⁾ 국내 수요 증가율의 저하와 제한적 석유제품 수출도 중국 정유사의 정제설비 가동률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정제설비 가동률은 2011년 평균 70.4%에서 2012년에는 68%, 2013년 중반에는 63% 이하로 저하했고 2014년 5월에는 60% 이하를 기록했다.

중국의 거대 국영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능력 과잉에 따른 공급 초과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제설비의 신설계획이 연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지난해 CNPC는 광둥성 서부의 CNPC-PDVSA 정제소(40만b/d) 및 운남성 근교의 안녕(安寧) 정제

6) JPEC, 「中国の軽油の需要動向」, 2015.8.27.

7) JPEC, 「過剰設備と構造変化に直面する中国の石油精製部門」, 2014.1.29.

〈표 6〉 가동 연기가 공표된 중국의 신규 정제설비 계획

단위 : 천 b/d

	정제능력	정유사	해외파트너	계획 연도	수정계획
天津市 東方	320	CNPC	로스네프트	2015년	2020년 이후
雲南省 安寧	200	CNPC	아람코	2014년	2016년
浙江省 台州	400	CNPC	셸, 카타르	2015년	2020년 이후
廣東省 湛江	300	Sinopec	토탈, 쿠웨이트	2013년	2020년
廣東省 揭陽	400	CNPC	PDVSA	2015년	2019년
山東省 威海	200	CNPC	PDVSA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1,820				

자료 : JPEC, JPECNews 「中国石油エネルギー動向調査」, 2015.3.7, 원자료는 北京山益信息諮詢公司.

소(20만b/d)의 조업계획을 각각 2년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절강성의 CNPC-카타르-셸 정제소(40만b/d), CNPC의 산둥성 정제소(20만 b/d) 및 하남성 정제소(20만b/d), Sinopec의 하북성 정제소(24만b/d), CNOOC의 하북성 및 산둥성의 원유 증류장치(topper) 증강 계획 등 신규 및 기존 설비의 갱신계획이 재고되고 있는 상황이다.⁸⁾

8) JPEC, JPECNews 「中国石油エネルギー動向調査」, 2015.3.7.

중국의 정유산업은 신창타이로의 전환으로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설비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향후 수년간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정유사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체제 도입의 확대에 따른 거대 국영 정유사의 구조조정 등 정유업계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시사점

우리나라 정유산업은 2000년대의 집중적 설비 투자 및 수출확대 전략을 통해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정유산업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5~60% 정도로 내수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전통적 수출품목인 반도체 및 자동차를 제치고 전체 수출액 중 10.2%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이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대중 수출이 대일 수출보다 확대되며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20% 이상을 유지해 오던 석유제품의 대중 수출물량 비중은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전체 석유제품 수출 중 대중 수출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15.6%까지 하락하였으며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중수출 감소의 원인은 2000년대 후반 중국 고도성장기의 투자 중심 성장전략에 기인한다. 중국은 정유산업에서도 자급률 확대를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정제 능력 과잉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실패가 이를 더욱 부추겼다. 현재 중국의 정유산업은 新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거대 국영기업 중심의 대규모 정제설비 확충계획과 석유제품의 수요 증가율 감소를 고려할 때 공급과잉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유산업의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대중 수출에 있어 양적·질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유산업의 고도화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유산업이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경우, 자국 내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출확대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중국 내 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와의 수출경

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안정적 수요처 확보 및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통해 대중 수출의존도를 축소해야 한다. 특히 석유제품 공급부족 국가인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과 정제 설비 폐쇄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유럽지역으로의 수출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대중국 수출에서는 향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항공유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중국의 신창타이로의 전환은 석유제품의 소비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여행·운송의 활성화, 환경규제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석유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정제능력 과잉 해소를 위한 기업간 구조조정과 더불어 석유제품 가격결정 시스템 등 에너지시장 전반에 걸쳐 시장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은 중단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정유산업에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㉑



최동원

신성장산업연구실·부연구위원
dwchoi@kiet.re.kr/044-287-3144
(주요 저서)

- 최근 정유산업 실적 악화의 배경과 대응방안(2015)
- 글로벌 물산업의 경쟁구조 변화와 시사점(2015)